

목회자와 교인 모두 '당회' 역량 낮게 평가!

현대사회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 사회이다. 교회 역시 목회자와 교인, 여러 세대, 직분 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양한 세대, 그룹을 하나로 묶는 신앙 공동체를 이뤄야 하지만 점점 더 세분되어 가는 구조 속에서 서로 간 소통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와 목회데이터연구소가 공동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 내 의사소통'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교회 내 목회자와 교인 간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에 관한 조사

조사개요

구 분	담당목사	교인
조사 대상	담당목사	교회 출석 기독교인
조사 방법	모바일 조사	온라인 조사(온라인 패널)
표본 규모	총 500명 (유효 표본)	총 1,000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편의추출	교회 출석 기독교인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표본 오차	-	무작위추출을 가정할 경우 $\pm 3.1\%p$ (95% 신뢰수준)
자료 처리	교회규모별 가중치 적용	-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4년 7월 22일 ~ 25일	2024년 7월 19일 ~ 26일
조사 의뢰 기관	한국교회지도자센터,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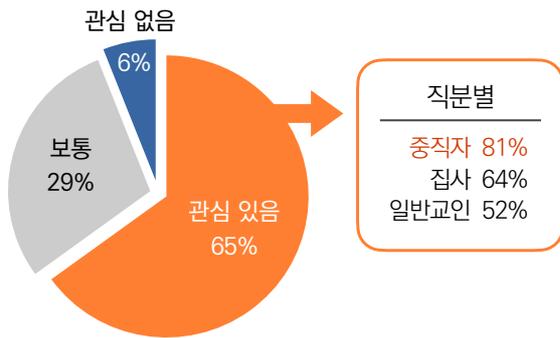
01

[교회와 교인의 소통 실태]

한국교회 교인 3명 중 2명, '우리 교회 소식에 관심 있다'!

- 교회는 보통 주보, 예배 중 광고, 홈페이지, 문자/카톡, 소그룹 등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 교회의 소식과 정보를 교인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교회 소식이나 정보에 교인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교인 3명 중 2명에 해당하는 65%가 '관심 있다'고 응답했다.
- 교회 소식에 대한 관심은 직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중직자는 81%가 '관심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교인의 관심도는 절반 정도인 52%에 머물렀다.

[그림] 교회 행사/프로그램/교인 동정 등 소식에 대한 관심도* (교인, %)



*5점 척도

교회 소식 소통 개선점, 목회자: 다양한 매체 사용, 교인: 방법보다 투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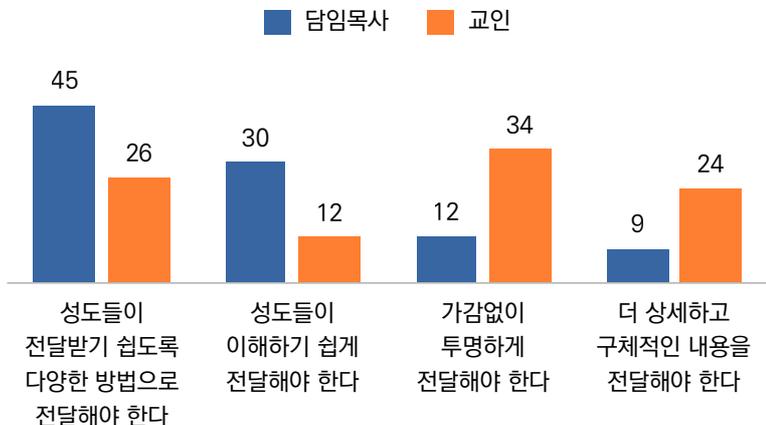
- 이러한 교회 소식/정보 전달에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담임목사의 55%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교인이 느끼는 개선 필요성은 28%로 담임목사의 절반에 불과했다.
- 교회 소식/정보 전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에게 개선 사항을 물어본 결과 담임목사와 교인의 응답이 상이했는데, 담임목사는 '다양한 방법 전달(45%)'과 '이해하기 쉽게 전달(30%)'을, 교인은 '투명하게 전달(34%)', '구체적인 내용 전달(24%)'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선택했다. 목회자들은 '전달 방법', 교인들은 '투명성'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림] 교회 소식/정보 전달 개선 필요성 ('매우+약간 느낀다' 비율*, %)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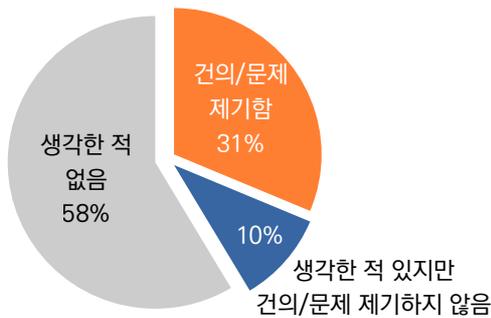
[그림] 교회 소식/정보 전달에 대한 개선사항 (교회 소식/정보 전달에 개선 필요 인식자, 상위 4위, %)



교회 문제 제기, 목회자 대부분 수용했다고 생각하지만 교인 의견은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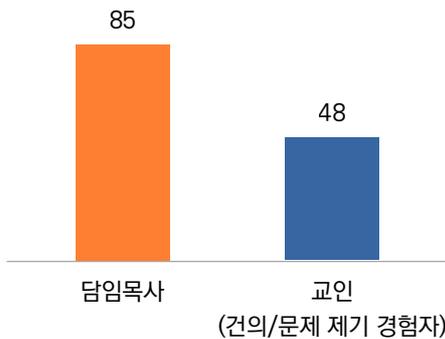
- 교회의 정책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인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물어보았다. 교인 10명 중 3명(31%)이 '건의/문제 제기했다'고 응답했으며, '생각한 적 없다'는 응답은 58%나 되었다.
- 한편, 교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담임목사의 85%가 '수용했다'고 응답한 반면, 건의/문제 제기 경험이 있는 교인은 48%만이 '수용됐다'고 응답해 큰 인식 차이를 보인 점이 주목된다.

[그림] 교회 정책 문제로 건의/문제 제기할 생각과 실천 경험 (교인)



Note) 합계가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5점 척도

[그림] 교회 정책 문제로 건의/문제 제기했던 의견의 수용 정도 ('거의+어느 정도 수용했다/수용됐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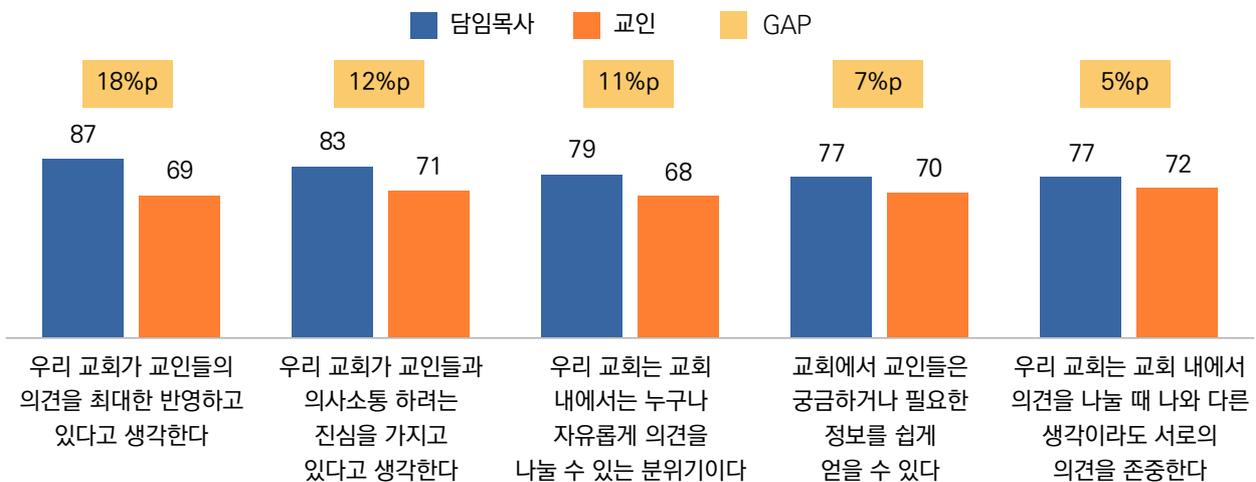
02

[교회 의사소통 문화]

교회 의사소통, 목회자 그룹이 교인들보다 더 잘 된다고 생각!

- 이번에는 교회와 교인 간의 의사소통 문화에 관한 5개의 진술문을 제시하고 동의율을 파악한 결과, 담임목사는 70% 후반대 이상의 긍정 평가율을 보인 반면, 교인은 70% 내외로 나타났다. 교인의 긍정 평가율이 담임목사보다 5~18%p 낮아 교인들보다는 목회자 그룹에서 교회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더 잘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담임목사와 교인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교회가 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로 18%p 차이를 보였다.

[그림] 교회 의사소통 문화 인식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5점 척도

목회자, 교인보다 의사소통 변화 필요성 더욱 느껴

- 교회와 교인 간의 의사소통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담임목사는 77%, 교인은 54%가 인정했다. 담임목사가 교인보다 변화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응답한 것은 현재 현장에서의 의사소통의 답답함을 더 느끼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 담임목사의 경우 교회 규모가 클수록 개선 필요성도 더 느끼고 있어서 501명 이상 교회는 거의 모든 담임목사(97%)가 변화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림] 교회와 교인 간 의사소통에 대한 변화 필요성 생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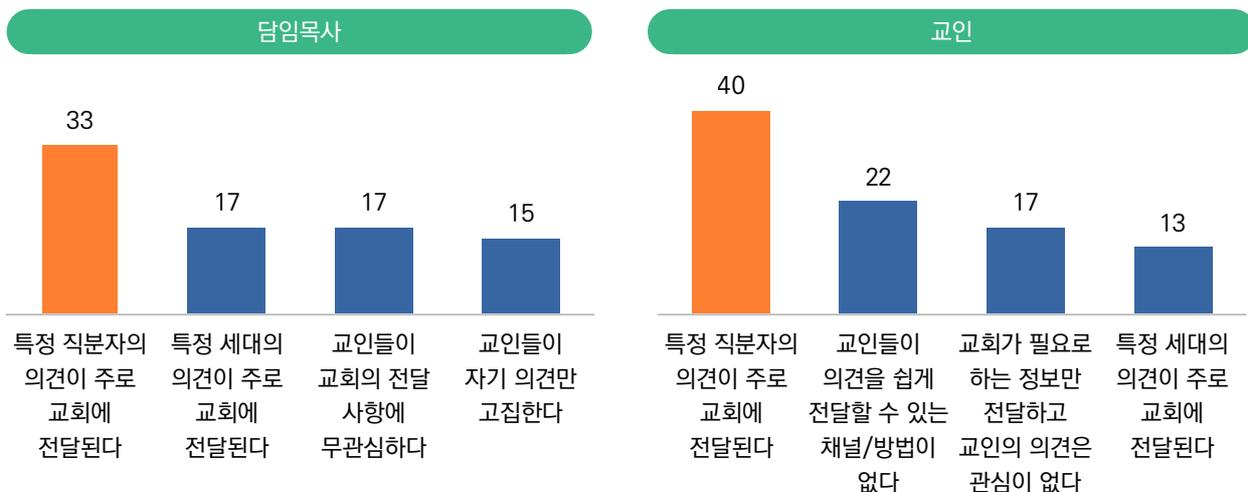


*4점 척도

교회 의사소통 문제점, '특정 직분자 의견에 집중되어 있다!'

- 교회와 교인 간 의사소통의 문제점으로 담임목사(33%)와 교인(40%) 모두 '특정 직분자의 의견이 주로 교회에 전달된다'를 선택했다. 다음으로 담임목사는 '특정 세대의 의견이 주로 교회에 전달된다'(17%)를, 교인들은 '교인들의 의견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채널/방법이 없다'(22%)를 선택했다. 의견 개선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순위로 담임목사는 '교인들이 교회의 전달 사항에 무관심하다'(17%)를, 교인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소식과 정보만 전달하고 교인의 의견은 관심이 없다'(17%)를 선택해 서로 상대방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그림] 교회와 교인 간 의사소통 문제점 (교회와 교인 간 의사소통 변화 필요성 인식자,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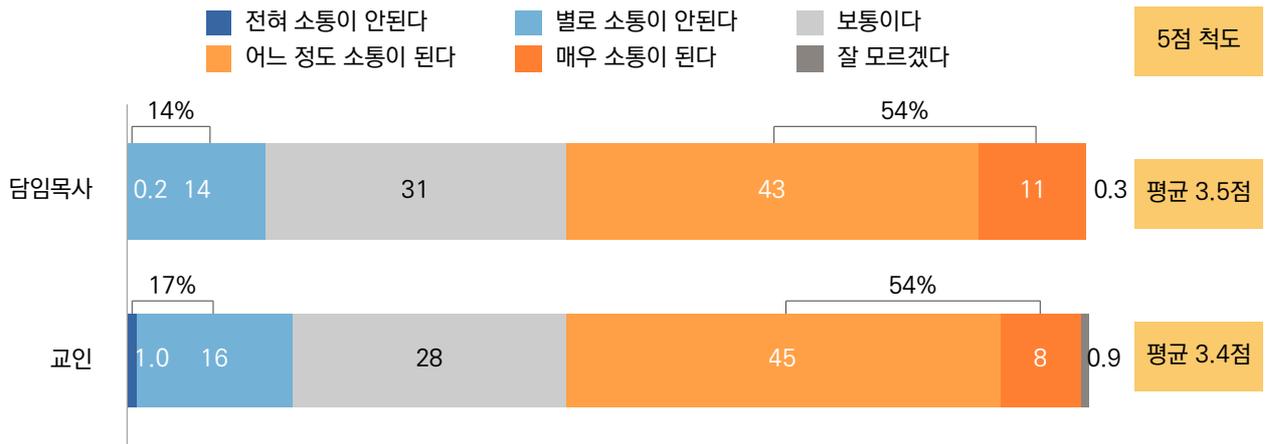


03

[세대 간 소통] 우리교회는 세대간 소통이 된다, 절반 정도!

- 교회에는 다양한 세대가 있다. 세대 간 원활한 소통도 교회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이다. 교회 내 세대 간 소통에 대해서는 담임목사(54%)와 교인(54%)의 절반 정도가 '소통이 된다'고 응답했다. 그렇지만 '매우 소통이 된다'는 비율은 각각 11%, 8%에 머물러 소통의 깊이는 깊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5점 척도 평균은 담임목사가 3.5점, 교인이 3.4점으로 그다지 높은 점수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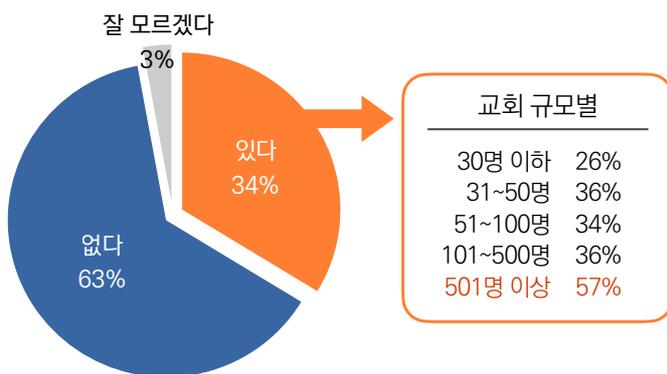
[그림] 교회 내 세대 간 소통 인식 (%)



3개 중 2개 교회, '교회 내 세대 간 소통 시스템 없어'!

- 이러한 세대 간 소통을 위해 '공식적인 모임, 회의, 제도'가 있는지 담임목사에게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분의 1만 이(34%) '있다'고 응답해 3개 교회 중 2개 교회는 교회 내 세대 간 소통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시스템이 있는 비율은 교회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림]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모임/회의/제도 유무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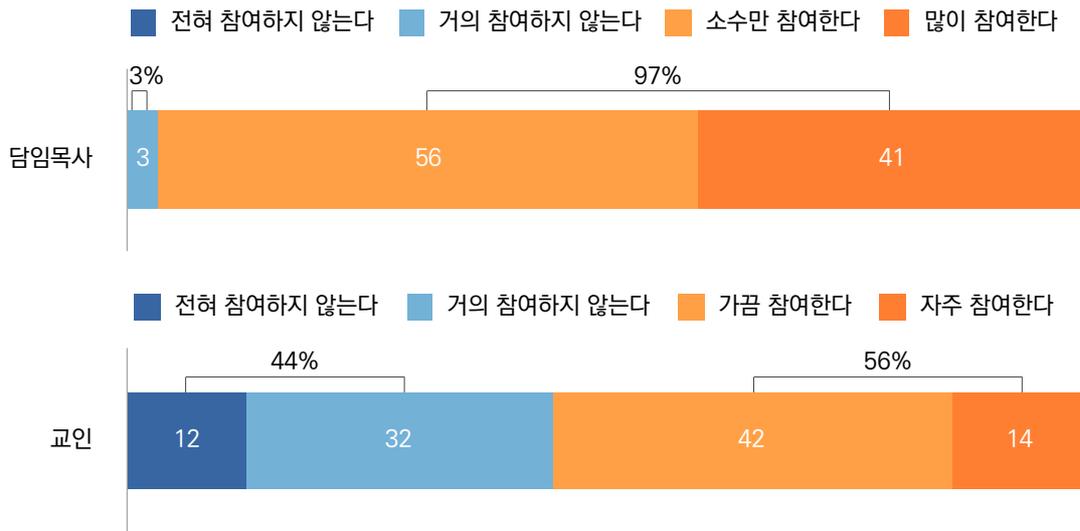
04

[교회 의사결정 평가]

목회자 '교인 대다수 의사결정 과정 참여', 하지만 실제 56%만 참여해

- 이번에는 교회의 의사결정에 관해 알아본다. 교인이 교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지 질문했을 때, 거의 모든 담임목사(97%)가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교인은 56%만 참여한다고 응답해 인식과 실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자주 참여한다'는 14%밖에 되지 않아, 실제 교인의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
-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담임목사가 교인을 종직자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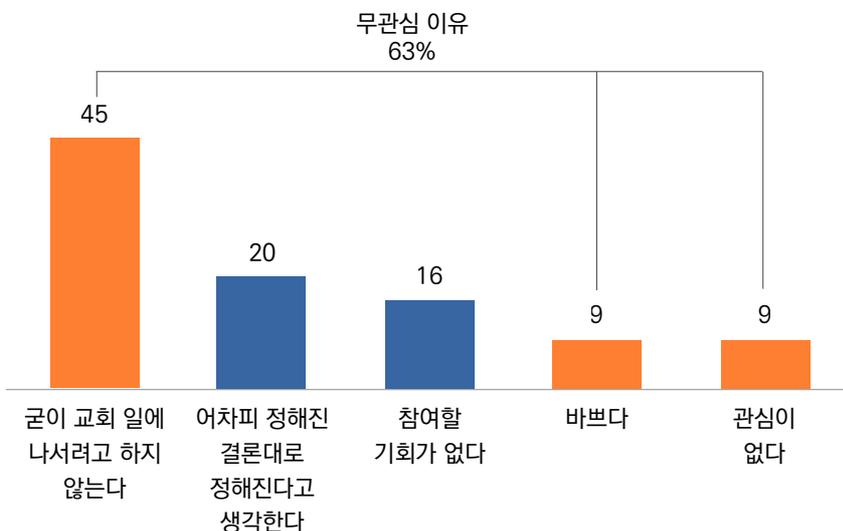
[그림] 교인의 교회 의사결정 과정 참여 여부 (%)



교인이 교회 의사결정 비참여 이유, '굳이 교회 일에 나서고 싶지 않아!'

- 교인이 교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굳이 교회 일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45%)가 가장 높았으며, '어차피 정해진 결론대로 정해진다고 생각한다'(20%), '참여할 기회가 없다'(16%) 순으로 나타났다.
- 1순위 이유에 '바쁘다'(9%), '관심이 없다'(9%)를 더하면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교인의 63%는 교회 정책에 무관심한 부류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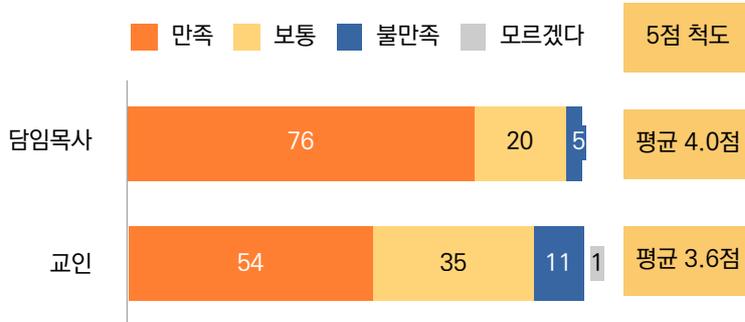
[그림] 교회 의사결정 과정 참여하지 않는 이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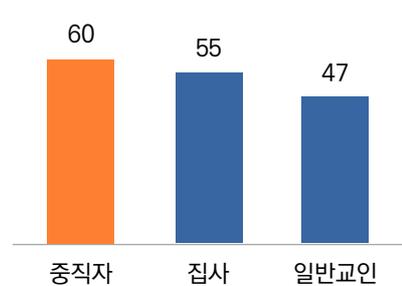
교회 의사결정 과정 만족도, 목회자 76%, 교인 54%!

- 목회자와 교인의 인식은 교회 의사결정 만족도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담임목사의 76%가 ‘만족’ 한다고 응답한 반면, 교인은 54%가 ‘만족’ 한다고 응답했다.
- 교인의 경우 직분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일반교인의 만족도는 47%로 절반에 못 미쳤고, 평균(5점 척도)도 3.6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림] 교회 의사결정 과정 만족도 평가* (%)



[그림] 직분별 교회 의사결정 과정 만족율 (교인, '매우+약간 만족'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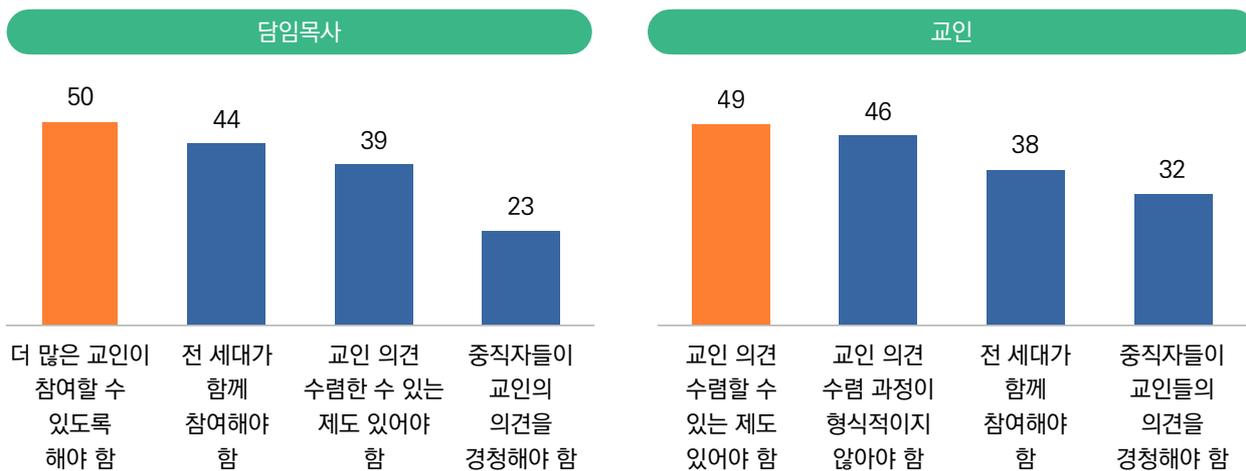


Note) 합계가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5점 척도

교회 의사결정 과정 개선점, 목회자: 참여 범위 확대, 교인: 수렴 채널 마련!

- 교회 의사결정 과정의 개선점으로 담임목사는 ‘더 많은 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50%)와 ‘전 세대가 참여해야 한다’(4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반면 교인은 ‘교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49%)와 ‘교인 의견 수렴 과정이 형식적이지 않아야 한다’(4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 담임목사와 교인 응답을 비교하면 상위 4개 응답은 거의 같았다. 단 담임목사는 ‘참여 범위 확대’를, 교인은 ‘공식적인 의견 수렴 채널’을 원하는 데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교회 의사결정 과정 개선점 (1+2순위,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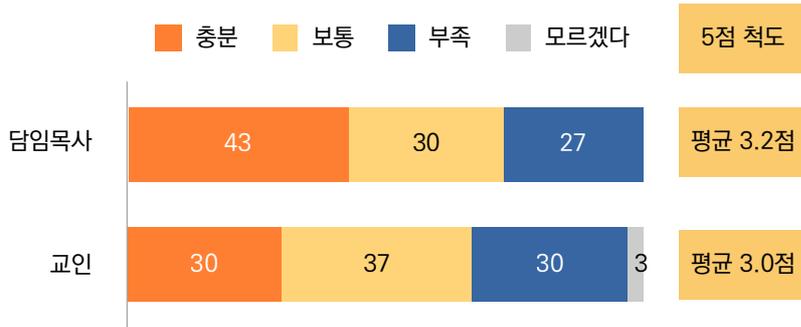


05

[교회 최고이사결정 기구 평가] 목회자와 교인 모두 '당회' 역량 낮게 평가!

- 장로교의 '당회'같이 목사와 장로 등이 모인 최고이사결정 기구를 설명하고 교회 내 이러한 최고이사결정 기구가 교인의 영적 필요와 교회 주요 정책을 결정할만한 충분한 역량을 가졌는지 물었다. 그 결과 '충분하다' 응답이 담임목사 43%, 교인 30%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최고 의사결정 기구 역량에 대한 평가가 낮았는데, 담임목사보다 교인이 최고이사결정 기구의 역량에 대해 더 신뢰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림] 교회 최고이사결정 기구의 역량 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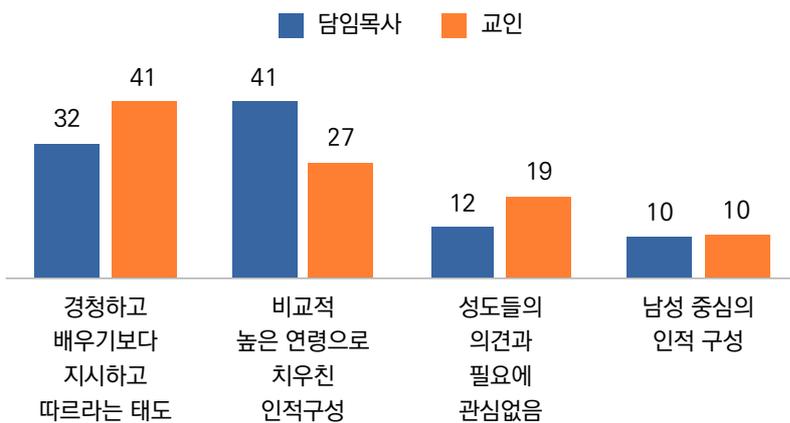


*5점 척도

최고이사결정 기구 역량 부족 이유, 목회자: 고령자 중심, 교인: 권위주의적 문화

- 최고이사결정 기구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근거로 담임목사는 '비교적 높은 연령으로 치우친 인적 구성'(41%)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다음으로 '경청하고 배우며 알아보기보다 지시하고 따르라는 태도'(32%)를 선택했다.
- 반면 교인은 '경청하고 배우기보다 지시하고 따르라는 태도'(41%)가 가장 큰 이유였고, 다음으로 '비교적 높은 연령으로 치우친 인적 구성'(27%)을 선택했다.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담임목사와 교인 모두 '고령층 위주의 리더 구성'과 '권위주의적 태도'가 문제라고 보고 있었다.

[그림] 교회 최고이사결정 기구 역량 부족 평가 이유 (최고이사결정 기구 역량 '부족' 평가자, %)



이번호 요약

1. 의사소통 관련한 목회자와 교인과의 인식 차이 간격 커

- 교회 정책 관련하여 담임목사의 85%가 제기된 문제를 '수용했다'고 응답했지만, 교인은 48%만이 '수용됐다'고 응답했다.
- 교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담임목사 76%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교인은 5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2. 교회 내 의사소통/결정의 문제점, '특정 직분자, 고령자 중심'과 '권위적인 태도'!

- 교회/교인 간 의사소통 문제점으로 담임목사(33%)와 교인(17%) 모두 '특정 직분자 의견이 주로 교회에 전달된다'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 당회 같은 최고의사결정 기구의 역량 평가는 '충분하다' 응답이 담임목사 43%, 교인 30%로 낮았으며, 역량 부족 이유로 담임목사는 '고령자 중심 구성'을, 교인은 '권위적인 태도'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기사] “목회자의 경청, 당회의 섬김이 원활한 교회 소통 만든다” (국민일보)
- ▶ [영상] 10년 동안 3040 절반이 교회 떠난 이유를 보니 (지용근 대표, CBS광장)

관련 성경 구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목회 적용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가족이라는 의미로 혈연적 관계 용어인 ‘형제’를 사용하셨다. 또한 성경은 교회를 각 지체들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았다. 이는 교회가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서로 협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교회 내 소통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목회자와 교인 간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것과 주로 특정 직분자에게 물려있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거부감이다.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우선 교회 리더들은 교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대의제를 따르고 있는 현재의 교회(특히 장로교회) 구조에서는 특정 직분자, 세대에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대체로 고령층이다. 세대별 가치관이 확연하게 다른 시대에 고령층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은 40대 이하 젊은 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여성 등 세대 또는 그룹별 대표자가 참석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도 교회 내 소통력을 강화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지금은 성도가 자신이 교회의 중요한 일원임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사역할 때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이다. 이러한 성도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내부적으로 건강해지고 외부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